

# 일자리 개선·美 수입차 관세 부과 '최대 관심'

### 기아차광주공장 수출 '기로'...5월 실업자 전년비 5000명 ↑ 부동산 규제 속 집값 향방 주목...국제유가 추가 하락 기대

#### 광주·전남 하반기 경제전망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 지표는 개선될까. 감세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생산·수출 현황은 나아질 것인가. 나홀로 상승세인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에도 오름세를 지속할까.

◇자동차 수출 타격보다 지역 경제가 하반기 주목하는 이슈는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번 232조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19~20일에 열리는 상무부 공청회를 마치자마자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전량 생산하는 쏘울과 스포티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폭이 현실화되면 미국 수출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만 전체 생산량(49만2333대)의 37.3%인 18만3959대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대미 수출 비중도 타 지역 공장에 비해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시 총 생산액의 32%, 광주시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최악의 고용지표, 나아질까=광주지역 상반기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이라는 표현이 쏟아질 정도로 고용 시장에 적신호를 울렸다. 광주지역 실업자는 지난 1월 2만3000명을 시작으로 ▲2월 3만5000명 ▲3월 3만9000명 ▲4월 3만 6000명 ▲5월 3만1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3월 실업자 수는 지난 2011년 3월(3만8000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고 감소세로 돌아선 5월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000명이 많은 실정이다.

실업률도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1월(3.1%)→2월(4.5%)→3

월(5.0%)까지 치솟았고 4월(4.6%), 5월(4.0%)에도 4.0%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4.0%대 실업률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올해가 유일하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동안 광주 실업률이 5.0%를 넘어섰을 때 ▲2005년 2월(5.0%) ▲" 3월(5.5%) ▲" 4월(5.0%) ▲2006년 2월(5.1%) ▲2009년 3월(5.0%) 등 5차례에 불과했다.

또 광주지역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때문에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내세우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10대 공약'을 밝힌 민선 7기 광주시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사다.

◇나홀로 상승세 이어갈까=지역 주택업계의 하반기 관심사는 광주지역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지 여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5개월 연속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5주 간 변동률도 오름세다. 전남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다른 지역이 정부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재건축 규제 등의 영향으로 약세

가 지속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국이다.

정부가 하반기에도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내는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인상에 금융권 대출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기름값 안정세 접어들까=연일 치솟던 기름 값이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언제까지 내림세가 유지될 지도 관심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미국의 원유제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랐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며 "국내 제품 가격은 기존의 국제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광주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7월 4째주 1당 1437.75원을 기록한 뒤 연일 오름세를 보이던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2째주 1610.12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약 1년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 휘발유 가격은 1590.27원을 기록 중이다. /김지희·박기승 기자 dok2000@

## 금호타이어 '미래위' 출범

### 노사 격주로 만나 경영정보 등 교류

금호타이어가 노사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들어갔다.

1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26일 서울 산업은행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 향후 운영 방향과 회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위원회는 회사 정상화와 장기 발전 방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노사문화 개선 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사측·조합, 더블스타, 산업은행 재단 등에서 각 2명씩 참여해 8명으로 구성된다.

회사에서는 조재석 부사장과 백훈선 상무, 노조측 대표로는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공석지회장이 참여하고 더블스타에서는 장권화 총경리(CFO)와 왕사오인 총감(HR)이 위원에 포함됐다.

타에서는 장권화 총경리(CFO)와 왕사오인 총감(HR)이 위원에 포함됐다.

금호타이어 미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격주에 한 차례씩, 다음달부터 매월 한 차례씩 만나 ▲회사 경영정보 ▲회사정상화 및 장기발전방안 ▲국내공장 설비투자 방안 ▲노사합의 이행 여부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주로 예정된 더블스타와의 본계약을 앞두고 '금호 상용 협의하는 기구로, 사측·조합, 더블스타, 산업은행 재단 등에서 각 2명씩 참여해 8명으로 구성된다. 회사에서는 조재석 부사장과 백훈선 상무, 노조측 대표로는 조삼수 대표지회장

과 정송강 공석지회장이 참여하고 더블스타에서는 장권화 총경리(CFO)와 왕사오인 총감(HR)이 위원에 포함됐다.



## 하이트진로 '광주 청년 CEO 만들기'

### 창업 프로젝트 본선 15팀 시상...금상 '렛잇비어'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G&R HUB세미나실에서 '광주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 본선대회를 개최하고 총 15개팀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하이트진로에서 처음 개최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등 20대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는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광주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고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상 1000만원의 상금에 총 3000만원 상당의 상금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하이트진로는 청년들의 꿈과 지역발전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광주TFT 및 회사직원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서류심사를 통해 본선에 참가할 15개팀을 선발했고, 이 팀들이 우승상금을 놓고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날 열린 본선대회에서는 후원 대학교인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의 창업지원센터장 및 하이트진로 호남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올해 초 하이트 엑스트라로드가 추구하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강다니엘을 새 모티브로 발탁하고 2018년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지난 27일 전남대학교 G&R HUB세미나실에서 '광주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 본선대회를 개최하고 총 15개팀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하이트진로에서 처음 개최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행사로 지역 청년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 등 20대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 광주·전남 거점 항공 '에어필립' 날아오른다

### 신규 취항시...모델 다니엘헤니 광주~김포 1일 2회 왕복 한달간 동반자 무료 이벤트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항공사(주)에어필립(대표이사 엄일석)이 지난 29일 광주공항에서 '신규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취항식에는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무영 부산지방항공청장, 김경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지사장 등 참석해 취항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취항식에는 에어필립 광고모델인 다니엘 헤니가 참석하면서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몰렸다.

다니엘 헤니는 "필립에셋의 혁신과 노력에 축하드리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기반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어필립은 이날 1호기인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에서 제작한 50인승 항공기 'ERJ-145'를 취항, 광주-김포 노선에 매일 2회 왕복 운항하게 된다. 첫 취항을 기념해 취항 한달 동안 '동반자 무료항공권' 이벤트를 진행, 모든 탑승객에게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요금은 주중 7만~13만원, 주말 9만~13만원, 성수기 13만원 선이다.



지난 29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열린 에어필립 취항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0일 첫 운항을 시작한 에어필립은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로, 매일 광주~김포, 김포~광주 노선을 각각 2회씩 운항한다. /나명주기자mjna@

엄 회장은 "광주에 살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게 힘든데다, 광주·전남지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항공사"라며 "지역민들이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4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다 편하게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소형항공운송사업체 'Blue Air'를 인수한 뒤 설립된 에어필립은 지난해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체로 운항증명(AOC)을 변경했다. 같은 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비행 등을 거쳐 현재 모든 안전운항체계

변경 심사과정을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7월과 8월 2·3호기 항공기를 잇달아 들여올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현 기종보다 기체가 큰 'E-175' 기종을 3대 추가로 도입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2대를 보유해 '국내선→국제선→도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